

AI 돌봄로봇 '다숨이' 각 가정서 효자노릇 톡톡

익산시 복지행정 빈틈 없이

대면·비대면 종합 복지정책... 복지 사각지대 꼼꼼히 살피

익산시가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 계층에 보급한 인공지능(AI) 말벗·돌봄 로봇 '다숨이'가 각 가정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로봇 보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중장년층 등 집 안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이들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돌봄 로봇 100대를 도입했으며, 이용자들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 올해 30대를 추가로 보급했다. 내년에도 필요 가구를 발굴해 3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로봇의 이름인 '다숨이'를 부르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거나,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명령 수행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고립감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벗이 돼 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건강 관리다.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건강 지표 이상이 감지되면 로봇 스스로 보호자와 관제센터에 지원을 요청한다. 급박한 순간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구동되는 인공지능 로봇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계층도 적은 학습으로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특성상 사용률수록 그 편의성은 높아진다.



익산시가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 계층에 보급한 인공지능(AI) 말벗·돌봄 로봇 '다숨이'가 각 가정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익산시는 이처럼 신기술을 접목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더해 빈틈 없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웃애(愛) 돌봄단'도 그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일상 생활 불편을 직접 들여다보며 각 읍면동 대면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시는 카카오톡 채널 '익산 주민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전문가와 비대면으로 복지 상담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복지정책과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도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전력사용량 및 통신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이 전달돼 신속하게 대처하는 '인기 가구 안부살핌서비스'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인공지능 로봇이 가정 안에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옮겨줄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농기센터, 시설원에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사업 펼쳐

어린 모종단계부터 방충망 설치 매개충 유입 차단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시설채소 재배의 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해 시설원에 종합예방기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식물바이러스는 보통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매개충이 작물을 가해하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며 바이러스는 직접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매개충 방제는 가장 기본적인 방제 수단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은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반점 또는 위조 증상이 생기고 밀도가 증가해 작물의 생육불량 과실기형 등 상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멜론·수박 등 박과류 시설채소 농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BY), 박과파록황화바이러스(CCYV),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WM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오이박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V) 등 5종이 있다. 이중 박과파록황화바이러스(CCYV)는 가루이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이다.

실제, 육산 박순녀 멜론 농가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 모종 단계부터 방충망을 설치해 매개충 유입을 차단하고, 색에 따른 불빛으로 유인해

매충을 잡는 광 방충기트랩 설치를 통한 매개충 예방로 바이러스 발생 밀도 저하와 농약 살포 횟수도 줄여 "노동력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해했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기상이변과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려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한국상품학회 주최 2023년도 대한민국 상품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군산문화재야행, 상품대상 선정

학계서도 야간 문화행사로 최고 명품 상품 인정

군산시는 군산문화재야행이 지난 3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사)한국상품학회(회장 문찬, 한성대학교 교수) 주최 2023년도 대한민국 상품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상품대상은 (사)한국상품학회에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빛낸 상품과 기업을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올해로 23번째 열린 대한민국상품대상은 군산문화재야행 이외에도 (주)시몬스, (주)유이한형제들, 디자인생각박물관, 예신군 예담관광지 등 5개의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문화재야행은 지난 2016년부터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국내 대표적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야간 관광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군산문화재야행이 국내 대표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학계에서도 인정받게 됐다"며 "내년 야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1882년 설립된 사립법인 한국상품학회는 상품화 발전을 위해 국내 120여개 대학교 교수와 전문가 등 1,0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학회로, 2000년부터 매년 우수한 상품을 발굴해 대한민국상품대상을 선정 기업과 지자체를 격려하고 있는 순수 학술단체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 해외교류 확대 기반 국제도시 도약

익산시가 해외도시와의 교류확대 기반으로 국제도시로 도약한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허진 부시장을 비롯해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중국 절강성 자싱시와 강소성 진강시를 방문해 해외도시와의 교류 확대에 나선다.

대표단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절강성(浙江省) 자싱시를 방문하여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강소성 진강시에서는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우선 대표단은 절강성 자싱시를 방문해 상호 우호협력 협약 체결을 논의한다.

자싱시는 지리적으로 항저우, 쑤저우, 상하이와 같은 중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 위치하며 식품산업이 발달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도가 분기하는 철도교류 중심지로 익산시와 공통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는 지난 8월부터 화상회의로 자싱시와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두 도시 간 우호협력 협약일정과 교류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진강시 방문에서는 최종요 시의장을 비롯한 14명으로 구성된 익산시 의회도 함께한다.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해 대표단이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 모형을 진강시 전시관에 기증한다.

전시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석탑에 대해 널리 알리고, 앞으로 두 도시의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익산시의 다양한 유적지, 행사 사건 뿐만 아니라 25년 동안 이어진 상호교류 사 진도 전시해 두 도시의 우정을 과시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군산시는 지난 3일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산림복지과 산불종합상황실 및 23개 읍면동에서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까지 기상 상태별 탄력적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불진화대 48명, 산불감시원 46명을 선발해 산불 중점 관리 지역에 배치해 산불감시, 산불 예방 홍보, 산불 위치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신속 신고 등 초동 진화와 현장 업무를 실시한다.

박찬석 산림복지과장은 "가을철 산행 등으로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불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부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군산시, 울 생산 공공비축 미곡 5766.2톤 매입 추진

군산시가 올해 비 5,766.2톤(14만4,155포/40kg)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매입량은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한 물량이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 해품 2개 품종으로 산물비는 지난 10월 초부터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조비는 이달 초부터 읍면동별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하며, 중간정산금(3만 원)은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원활한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지난 10월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부관리양곡 창고주 및 읍면동 담당자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을 설명하고 안전한 매입 현장 관리를 위해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군산시 배정물량의 전량을 매입하여 1년 동안 고생한 농가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